

광주·전남 스쿨존 속도위반 해마다 급증

최근 4년간 무려 8배 증가...과태료 부과액도 크게 늘어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안전속도 준수 등 인식 개선”

광주·전남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전남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광주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4천114건, 2018년 1만6천42건, 2019년 1만9천515건, 2020년 2만8천607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같은 기간 5천903건, 2만4천613건, 2만595건, 2만9천934건으로 최근 4년새 광주전남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5년 사이 무려 7배, 전남은 5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단속 건수

가 지난해 전체 수치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전년 대비 단속 건수가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매년 증가했다. 실제 최근 4년간 광주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억4천만원, 2018년 12억4천만원, 2019년 14억9천500만원, 2020년 22억1천600만원이며, 전남은 같은 기간 4억3천900만원, 18억1천600만원, 15억4천400만원, 22억2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136만7천887건으로 2017년(32만5천234건) 대비 4배 이상 급증

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원에서 982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확충이 이뤄지면서 광주와 전남의 무인단속 장비 설치도 해마다 증가했다. 광주는 2017년 6대에서 2021년 6월 51대로 약 8배 증설됐고, 전남은 2017년 2대에서 2021년 6월 141대로 무려 70배나 장비 숫자가 늘었다.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서구, 은행열매 악취 없는 거리 조성

광주 서구가 가을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진동 수확기를 통한 은행열매 털기 작업에 나서고 있다. 26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 상가나 학교 주변을 시작으로 은행열매 털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은행열매가 빨리 숙성돼 떨어짐에 따라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동 수확기를 도입했다. 진동 수확기는 나무에 진동을 줘 은행열매를 떨어뜨리는 장비로 나무에 피해가 적고, 인력에 의한 채취보다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작업은 오는 11월1일까지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구 관계자는 “진동 수확기 이용으로 효율적인 작업이 이뤄지면서 악취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이 쾌적하게 가을 단풍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걸으면서 한반도 통일 염원’ 지난 25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동적골 일원에서 열린 ‘통일만보’ 걷기 행사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앞줄 왼쪽)과 임택 동구청장 등 시민들이 가벼운 발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8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서 조난된 고 김홍빈 대장을 추모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광주동구 제공>

전남도, 보행자 맞춤형 교통 안전정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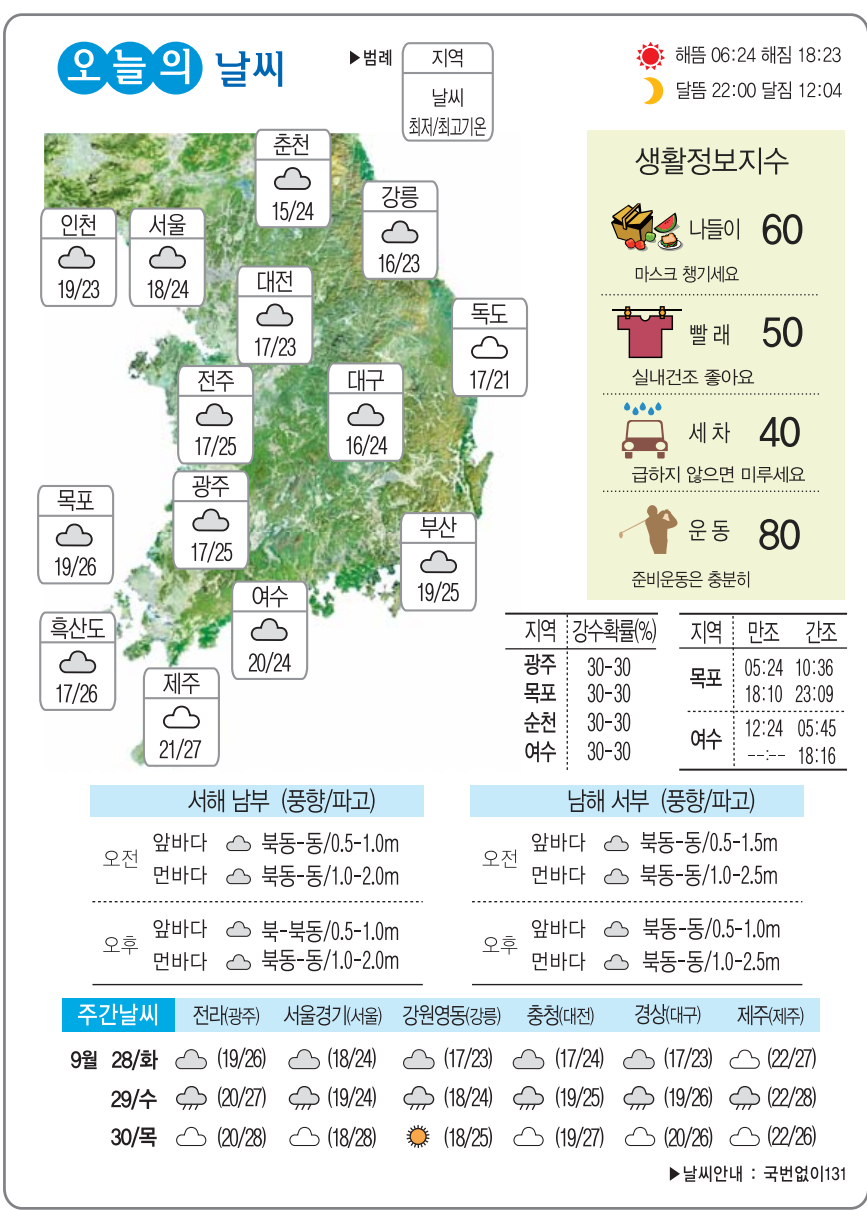
교통약자 전국 최다...교통사고 사망자 3년간 27.4% ↓

전남도가 2018년부터 시행한 보행자 맞춤형 교통 안전정책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81명으로 시책 시행 전인 2017년 387명과 비교하면 3년간 106명(27.4%)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175명이 숨

져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보다 23명(13%)이 줄었다. 전남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68만여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고 농어촌도로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는 주목된다. 이는 전남도가 중점 추진한 ‘사람이 먼저’라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

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보행 중에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안전 대책을 우선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시야 확보가 어려운 69개 횡단보도에 22억7천만원을 들여 전방신호등을 설치했으며 2022년에도 19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 바닥형 신호, 음성안내 등 보조장

치를 겸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91개소에 33억7천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야간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안전조명도 지난해 229개소에 이어 올해 216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 첫 시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9억원을 들여 79개소에 설치했다. 횡단보도 선을 따라 LED 조명이 비쳐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의 올해 교통안전 예산은 2018년 151억원보다 3.2배 늘어난 481억원이다. 대부분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과 안전 강화 비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전남도가 쏟고 있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김재정기자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희망메시지 캠페인

전남대병원이 새병원에 대한 지역민의 바람을 듣기 위한 ‘희망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으로 새병원 사업 본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향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꿈의 병원으로 탄생하게 될 새병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 등 다양한 희망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새병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전남대병원 새병원은 () 병원이길 바란다’라는 문구의 ()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모두에게 기념품이 증정되고, 캠페인 내용 중 일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새병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캠페인은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단계별로 참여 방식을 바꿔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수기자

무등산국립공원,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1월7일까지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활동 등의 계도를 하고, 같은달 4일부터 본격적인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에 나선다. 공원사무소는 사전예고 기간 공원 초입부 7개소에서 문자전광판을 활용한 집중단속 예고를 한다. 더불어 탐방객 밀집 지역인 버스정류

과 쉼터, 주요거점인 중머리재, 장불재 등에 불법행위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무등산국립공원 가을철 주요 불법·무질서 행위는 흡연행위, 고지대의 새길 출입, 원효지구여사바위 일원 불법주차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 내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 조치기 이뤄진다. 아울러, 안전사고와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을 야기하는 야간 산행, 불법 야영 행위는 야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섬진강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목과시장, 석곡시장

● 장이 서는 날 ●

-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목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석곡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곡성군 GOKSEONG COUNTY

문의 : 062)650-2099